



광활한 푸른 들녘

그 곳에서 맞는 이국적 풍경



1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이시들목장 2 드넓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말 3 우유곽 형상을 한 철제 의자 4 아치형 지붕의 테시폰.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핫플레이스 (52) 성이시들목장

드넓은 목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와 말. 들판 위에 외따로이 서 있는 유럽풍 건축물. 제주에서 목가적이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고 싶다면 성이시들목장만 한 곳이 없을듯싶다.

성이시들목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16만5000㎡에 이르는 광활한 터에 잣소, 한우, 경주마들이 노닌다.

성이시들목장은 1954년 제주에 온 아일랜드 출신의故임피제 신부(본명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2018년 4월23일 선종)가 설립한 곳이다. 임피제 신부가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중산간 지대를 개척하며 1961년 건립한 중앙실습목장은 성이시들목장의 시초가 됐다. 당시 임피제 신부는 인천에서 들어온 암폐지 한마리를 밀천 삼야 가난에 허덕이던 도민들과 축산업을 일궈 한 때 목장을 동양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성이시들목장에 가면 영화·광고·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아치형 지붕의 테시폰도 만날 수 있다. 이 건축물은 임피제 신부가 숙소, 돈사 등으로 이용하려고 1961년 지은 것인데, 성이시들

목장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인근의 고대 도시 테시폰 지역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에서만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유럽 건축양식인데,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

故임피제 신부 제주사랑 정신 깃든 곳 유럽풍 테시폰·드넓은 목초지 명소

근에는 제주 목축업의 역사를 담은 테시폰을 문화재로 지정해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이시들목장에는 테시폰 말고도 인생 사진을 남길 만한 곳이 많다. 우유곽 형상을 한 철제 의자에 앉아 목초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유롭게 노니는 말들, 푸르름을 빛내는 들판도

눈을 사로 잡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점은 개방된 관광지가 아닌 목장지. 숲, 밭 등이 대부분 사유지여서 함부로 속안으로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것은 말아야 한다.

우유테마 카페 '우유부단'도 성이시들목장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성이시들목장과 사회적기업 '섬이다'가 목장 내 나무창고를 콘셉트로 건축한 카페인데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우유와 수제 아이스크림, 밀크티 등이 판매된다.

수제 아이스크림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성이시들목장의 유기농 우유의 맛을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제 밀크티는 모두 다섯 종류로 유기농 아삼, 유기농 얼그레이, 제주 생강, 우도 팥콩, 다희연의 유기농 녹차를 활용했다고 한다.

카페 수익금은 (재)성이시들농촌산업개발협회가 운영중인 호스피스 복지지원 등 복지시설 지원금과 청소년·청년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성이시들목장에 가면 성이시들센터도 꼭 들르기를 추천한다. 목장에서 도보로 5-6분 거리에 있다. 센터에 가면 기사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임피제 신부의 걸어온 길과 육성 인터뷰 영상, 공동체가 꾸려져가는 역사 등을 상세히 볼 수 있다. 또 수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돼 판매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19) 김순이 시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비바람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다. 김순이 시인은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를 통해 '자연이라는 책'이 주는 위안을 노래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을 때 바다로 가리"

우리 마음 최후로 기댈 곳 '윤희의 파도' 결국 바다로 마음의 구김살 퍼주는 존재

"제가 아는 잠수와 어부들 중에는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바다를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바다로 부터 찾아드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끈끈한 연대감을 저분들은 바다로부터 받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시다.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구 최후의 자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곳도 바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문학의 해'이던 1996년, 제주 문인협회가 펴낸 '제주문학' (29집) 특별 좌담에서 김순이 시인(1946-)은 '제주바다와 문학'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지닌 바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시인은 일찍이 제주바다를 노래했다.

'맨살의 얼굴로/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외로운 때마다/ 바다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바닷가 태생/ 구름에서 일어나 거슬러 부는 바람에/ 쥐어박히며 자랐으니/ 어디에서고 따라붙는 소금기/ 비늘 되어 살 속 깊이 박혔다'.

1991년 내놓은 그의 첫 시집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엔 외로운 때마다 바다를 생각하는 '나'가 있다. 마지막까지 마

음을 의지할 수 곳이 바다라고 했듯, 시적 화자의 피 속에는 '윤희의 파도'가 흐른다. 떨치고 어디론가 떠나보아도 끝내 바다로 되돌아온다. 원인 모를 병으로 몸이 저릴 때면 바다로 찾아가 몸을 담근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바다로 가리라 한다.

그걸 '바다 병(病)'이라고 불러야 할까. 같은 시집에 실린 '바다 병'에 등장하는 '내 고향 사람'은 수십 년 서울에서 맴돌면서 가장 그리웠던 건 바다였다고 나직이 털어놓는다.

그 바다는 실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상의 그것일 수도 있다. 희망의 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품은 바다에서 잠시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내게 아무도 모르는/ 섬 하나 있다/ 바닷속에 잠겨/ 아직도 자라나고 있는 섬/ 혼자 있을 때/ 외로이 일 때/ 괴로움에 못 이길 때/ 살며시 꺼내어본다' ('섬 2').

앞선 좌담에서 시인은 "나이 들어서야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해안으로 깊이 있는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고 했었다. 시선집을 제외하고 '바다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첫 번째 시집 '오름에 피는 꽃' (2000)에도 마음의 구김살을 퍼주는 바다 ('종달리 바닷가에 서')가 있다. '짜디찬 세상으로부터 귀향하여/ 푸르게 출렁이고픈 / 내 영혼의 바다, 제주바다'는 시인이 외로운 때마다 펴보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직항 전세기

브루나이 5일
출발일 12/21, 12/25 1인당 1,590,000원

브루나이골프 5일
출발일 12/21, 12/25 1인당 1,690,000원

- 세계에서 단2개뿐인 7성급 엠파이어 호텔에서 3박
-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 첫 해외순방지
- 동남아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
- 천연가스 석유의 나라 브루나이
- '정글의 법칙'과 '베를트랩'의 촬영장소인 울루렘부롱 국립공원 정글 대탐험
-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캄퐁아예르 수상가옥

제주-브루나이-말라카-세리페카-올루렘부롱 국립공원-세리페카-말라카-세리페카-브루나이-제주

· 포함 : 왕복항공료(공항세, 출국세, 유류세포함), 특급호텔(2인1실), 식사, 입장료, 한국어가이드, 전용버스, 해외여행보험 · 불포함 : 현지가이드팁 및 운전기사팁(싱가폴달러 55\$ / 1인당), 현지선택관광, 부가세별도

제주드림여행사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체 www.jdkorea.net

제주드림여행사 ☎ 721-7500

제주출발 해외여행